

# 광주 석산고 '경찰의 별' 경무관 3명 동시 배출

### 오문교·이용석·곽순기 승진 명단에 나란히 이름 올려 전국 22명중 광주·전남 출신 6명... 지방청 다수 선발

광주 석산고등학교 출신들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명단에 3명이나 이름을 올려 화제다.

30일 발표된 경찰청의 인사에서 오문교(석산고 10회)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장, 이용석(석산고 11회) 전남경찰청 수사과장, 곽순기(석산고 11회)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전체 22명 승진자 중 광주·전남 출신은 모두 6명이다.

경찰대 5기인 오문교 경무관 승진자는 경기 의왕경찰서장, 경기남부청 교통과장,

경기남부청 정보과장 등을, 경찰 간부후보 43기인 이용석 승진자는 목포경찰서장, 여수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경찰대 5기인 곽순기 승진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서울은평경찰서장,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광주경찰청은 단 한명의 승진자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지역 고교 출신들의 약진에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광주청에선 경무관 승진자가 없어 아쉽긴 하지만, 광주 지역 고교 출신들이 많이 포함돼 축하

하는 분위기"라면서 "지금까지 경무관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고교도 많은데, 석산고에서 한꺼번에 3명이나 배출한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케이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광주 석산고에서 경무관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경무관 3명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석산고 3인방 외에도 광주·전남 출신 승진자는 박성주 서울청 수사과장(경찰대 5기·보성·광덕고), 정병권 경찰청 자치경찰기획과장(경찰대 6기·광주·광주고), 김희중 강원청정보과장(간부후보 41기·구례·구례농고) 등이다. 정병권 승진자는 광주 남부서 정병현(경정) 정보보안과

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정현 석산고 교장은 "석산고 출신 중 10여명이 총경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무관 승진자는 이번이 처음인데 동시에 3명이 배출했다"면서 "어려운 곳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배들을 보며 후배들도 큰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총경급 22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청에서 역대 최다인 8명의 경무관 승진 예정자를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5명, 사이버수사 1명, 과학수사 1명 등 범수사 분야에서 7명이 승진 예정자로 발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자년 쥐의 해 소망 담았어요 3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2020년 경자년 새해 소망을 담은 귀여운 쥐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사립대 28곳 중 3곳만 법정부담금 완납

서영대 1.1%, 세한대 3.1% 10%에도 못미친 대학 13곳 일부 임원들 1억원 넘는 연봉

광주·전남 28개 사립대학교 법인 중 지난해 기준 법정무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곳은 3곳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13개 사립대는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밝힌 사립대 법인의 법정무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광주·전남 28개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광주기독교대와 영산선학대, 호신신학대 등 3곳이었다. 나머지 25개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송원대가 9억 3285만 9000원 중 7억원을 납부해 75%의 납부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기독교대과 목포기독교대가 71.9%로 나타났다. 광신대 64.6%, 남부대 43.5%, 초당대 28.6%, 호남대 18.3%, 광주대 15.3%, 동신대 12%, 조선대 9.4% 등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교도 13곳이나 됐다. 특히 서영대는 1.1%, 세한대 3.1%, 광주보건대 4.2%, 조선이공대 4.6% 등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임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핍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여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살전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빛원전 열출력 급상승 황룡강 장독습지 보존 결정

#### 올 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

황룡강 장독습지 보존 결정,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상승, 여수산단 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올 한해 환경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잇따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올해의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도달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3,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 넘는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황룡강 장독습지 보존 결정-1년 2개월간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황룡강 장독습지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존이 결정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수산단 대기미세먼지 배출 조작 =올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내 기업 6곳이 적발됐다.

◇이물질 수돗물 사고=올 11월 광주 서남·북구 일부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됐으며 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나프탈렌도 미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환경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영산강 보 체제 갈등 ▲광양제철 폭발·오염 사고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시민 참여 에너지계획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등을 올해의 환경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달뜨기	11:11
해질	17:30	달집	22:16

저무는 한해  
아침에 곳에 따라 눈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눈온뒤 갭 -3/1	보성	맑음 -5/0
목포	눈온뒤 갭 -1/0	순천	맑음 -4/2
여수	맑음 -2/2	영광	눈온뒤 갭 -3/-1
나주	눈온뒤 갭 -4/1	진도	눈온뒤 갭 -2/2
완도	맑음 -1/2	전주	맑음 -5/1
구례	맑음 -6/1	군산	맑음 -5/0
강진	맑음 -2/1	남원	맑음 -7/1
해남	맑음 -4/1	흑산도	맑음 1/3
장성	눈온뒤 갭 -5/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0.5~2.0
	면바다(북)	북서~북	2.0~4.0	북서~북	1.0~3.0
	면바다(남)	북서~북	2.0~4.0	북서~북	1.0~3.0
남해 서부	안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0.5~2.0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0~3.0

◇생활지수

감기	매우 높음
뇌졸중	매우 높음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19 23:04	04:57 17:41
여수	05:41 18:32	12:21 --:--

◇주간 날씨

1/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	☁	☁	☀	☁	☁	☀
-4/6	-1/9	1/9	2/9	-1/9	2/11	5/11

### 화상사고 90% 실내서... 주요 원인은 '끓는 물·수증기'

화상사고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발생하고, 주된 이유는 끓는 물이나 수증기 등 뜨거운 물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2014~2018년 동안 화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해 분석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상 사고 10건 중 9건은 집, 상업시설 등 실내(89.6%)에서 발생해 실외(9.6%)보다 9배 많았다.

세부 장소를 살펴 보면 집이 65.9%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 19.2%, 공장·산업·건설시설 4.2%, 야외·바다·강 2.2% 등의 순이었다. 발생 시간은 주중보다는 주말이 많았고, 오후 6시~밤 12시에 전체의 44.1%가 발생했다. 사고의 61.9%는 일상 생활 중, 29.4%는 업무 중에 일어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북구 민선 7기 공약이행률 49% '순항'

광주시 북구가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결과 민선7기 공약이행률을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북구는 "지난 26일 구청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해당부서장, 공약이행평가단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의 충실한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선7기 1년 6개월 동안의 추진성과, 향후계획, 개선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민선 7기 북구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8개) ▲매력적인 도시재생(10개) ▲행복나눔 동행복지(7개) ▲어우러진 생활문화(9개) ▲주민참여 혁신행정(4개) 등 5대 분야 총 3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북구의 공약이행률은 49.3% 기록했으며 공약사업 중 '정상추진' 사업이 97.4%(37개),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은 2.6%(1개)로 나타났다.

/정병호 기자 jusbh@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